바다와 나비

아직 나는 소금물을 느껴본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 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바닷물에 절어버린다.

자신을 새라고 생각했던 나비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떨리는 자신을 본다.

십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스스로를 보호 밖으로 내팽개쳐 봐야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요.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는 경험은 나를 감싸던 허영심을 알게 해줘요.

흰 나비처럼 바다를 경험해야 바다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바다를 청 무우밭으로 보게 하고, 바다에 몸을 던지게 하고, 스스로를 새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이처럼 우리를 독특한 경험들로 내몰고,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이라는 가혹한 선생님에게 감정의 당근과 채찍을 맞으면서 배우게 되죠.

이럴 때에 그림은 힘든 현실을 잠시 잊고 쉬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나를 반영하기에, 한편으로는 나를 반영하지 않기에 휴식처가 될 수 있어요.

먼저, 그림은 재미있는 일기에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해요. 예를 들어 저는 언제고 이 그림을 보면서 워크숍을 위해 만났던 형 누나들과, 제가 이 단발머리 사람을 그리며 고등학교 3학년때 좋아했던 단발머리 여자애를 생각했다는 것과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관계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그리고 싶어도 그릴 것이 없어서 그리고 싶은 대로 비현실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기억할 거에요.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주관적인 기억들은 ‘아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지’ 하고 때떼로 저를 상기시켜 주거나, 잠시 옛날 생각을 하며 현제의 문제들로부터 피해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그림은 그린 사람의 의도나 상태를 벗어난 분위기와 느낌, 심상을 갖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마치 스승이 청출어람한 제자를 보듯, 부모가 자식을 보듯, 저는 저의 수많은 우울하고 부끄러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내 그림이 이렇게 밝고 경쾌한 느낌을 가지는 것을 보고 애틋함을 느낍니다.

영화 위플레쉬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을 보는 아빠나, 영화 싱스트리트에서 동생이 자신과 같을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형의 마음처럼, 그림은 저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기에 감동스럽고, 현제를 살아갈 힘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했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옛날에 그린 그림들을 보고 위안을 받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 싫고, 앞을 보기 싫고, 듣기 싫을 때마다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영상들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저의 습관은 꽤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간적인 문제와 그림이 갖는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 것이고, 그림이 저의 일상적인 취미가 되어서 제가 건강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